



2023 THE KIMS' NEWS 김규동 & 최미정 선교사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삼하22:30)



“선교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애초부터 안락을 구하지 않았다. 현실의 험된 욕망과 괴리감 앞에서 선교사의 양심은 시대를 점하는 기준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선교지라는 타문화권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당하거나 최선이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상황이 되면

오래 익숙한 환경을 박차고 새로운 도전을 길을 모색해 왔다.

지나온 30여 년의 선교사로서의 삶은 나를 다양성과 창조적, 자조적, 자립적, 전문성까지 고루고루 경험하였다. 지난 대만사역을 뒤로함은 펍이나 아쉬움 섞인 어조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나는 매번 사역의 종지부를 찍을 때마다 아쉽지만 이러한 기분은 머잖아 우리를 새로운 세계와 영혼을 향한 기대감으로 또다른 스타팅 라인에 세워주었다. 어려서 육상선수로 활약했던 나는 꽤나 달음질을 즐겨했고, 컷볼을 스키는 바람결과 속도를 즐겼다. 단지 그 순간과 느낌이 좋았을 뿐 결과에 연연하진 않았다. 스타팅 라인에 설 때면 세상의 모든게 정지되고 오직 내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말김.”

“지난 욕망의 분주함을 일순간에 정리하고 국내로 들어왔건만, 정작 우리는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먼저는 파송교회의 일방적인 파기 통보, 일부 협력교회들의 중도 하차, 수술 후 더딘 회복, 고단의 중국교회와 더불어 중국 선교사도 동병상련의 비슷한 처지임이 분명해 보였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신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와 겸손으로 재무장하여 스타팅 라인 앞에 무릎을 최대한 굽혀야 한다..... 초심이면 충분하리 싶다.”

1. 광신대 실크로드 고대기독교 유물전시관: 광주에 머무는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전시관 안내와 해설로 섬기고 있습니다. 천오백년이라는 놀라운 선교의 일을 감당해 온 동방교회의 엄청난 스토리를 듣고 눈으로 체험기를 바라봅니다.



2. 중국신학교 강의사역: 하베스트대학교, 수원세계선교신학원, 아시아선교신학원, GBC...에서 중국 이단&사이비종파 연구, 고대아시아기독교 동전사, 사막교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3. 파파야 중국 지도자 훈련반 재가동: 3월 이후 줄곧 ZOOM을 이용해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에게 매주 말씀(신학) 사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섬겨주신 동역자 목사님들께 감사. 그동안 중국교회는 정부의 핍박으로 모임과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대면으로라도 섬길 수 있어 너무 다행 감사입니다.



4. 대만 미운교회 자매님들 방한: 8일간에 걸친 한국 호남 지역교회 방문 중에 세계선교의 안목과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만교회가 선교에 깊이 참여하는 특히 중국선교에 헌신되기를 바라봅니다.



5. 광신대 교수님들과 지리산행: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지리산 견불동된장을 방문했습니다. 된장의 자연 숙성과정과 제조방법을 설명 들으며 우리 한식 조미료의 풍부한 영양과 맛을 바비큐와 함께 맛보았습니다. 대자연에서의 귀한 교제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6. 제주도 중국선교신학교 방문: 코로나 이전처럼 중국 각지로부터 수많은 여행객들이 속속 제주로 들어오고 있기에, 그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던 중국 선교신학교 사역이 올 하반기부터는 대면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에 가능성을 두고 세분 신학교 원장님들간의 긴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7. 요한이 한달간 한국방문: 친척 결혼식 참여차 한국에 들어와 분주한 일정 소화하고 돌아갔습니다. 학업과 스튜디오 광고업에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견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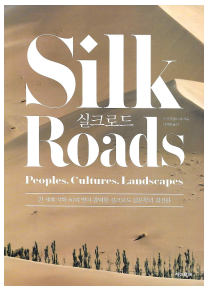


8. 국제 다문화 선교학교: 전쟁 중에 한국행 비자받기가 녹녹치 않았지만 복음을 향한 갈급함은 러시아 사역자들에게 길을 제시해줍니다. 경기도 이천 시골 교회에서 매년 훈련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 게스트하우스 확장작업: 달빛마을 숙소동의 부족으로 앞마당에 조립식 가건물 한동을 세우려 합니다. 한가족이 머물만한 공간이 부족해서 그동안 제대로 섬기질 못했는데 올 안에 완성시키려 합니다.



③①①만원의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국민 373301-01-091209 김규동)



10.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사역지 탐방사역: 코로나 이전 매년 주기적으로 실크로드 사역을 진행해오다가 근 3년간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현지 ①무슬림 청년 전도, ②화교교회와의 네트워크, ③현지 선교사들과의 연합사역입니다. 6~8월은 실크로드 분지의 지열이 거의 60도 이상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고 현지 음식과 기후 환경에 잘 적응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산에서의 고산증은 매번 방문 때마다 겪는 신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미소의 현지인들과 귀한 만남과 향후 사역과 관련된 일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를 소망해봅니다.

✚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① 책임지는 파송교회와 협력교회 그리고 각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소서!
- ②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지역 탐방사역(6/23-8월 중) 안전, 건강, 귀한 만남을 위해!
- ③ 신학교와 선교훈련원 강의(하베스트, GBC, 세계선교신학원, 아시아선교신학원, 파파야)
- ④ 저의 무릎연골 회복과 최미정선교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
- ⑤ “동방교회 도록” 출판비용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⑥ “파파야 지도자 훈련”에 참여하는 사역자와 수강하는 중국 리더들에게 은혜 있기를!

연 락 처: 한국 010-2510-7890(김규동) ; max4kmgu@gmail.com

후원계좌: 외환: 010-04-06396-263 (예금주: GMS)

2023-06-20 김규동 최미정 요한 시온 배상

